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1)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②

自獲流 道法遂營 新學之人 未盡法則
지회황류 도법수체 신학자인 미제법칙
善利眞正 安其眞實
착사기정 망기진실
以小爲善 以小爲爲足
이소함 위지 이소공 위족
포식종일 무소용심 퇴자추관 량역가비

(그러나) 거칠고 황당한 무리들을 거
느리고 부터 도법이 쇠퇴하기에 이르렀
으니 새로 배우는 이는 법을 체달하지
못한지라

삿된 길에 집착하고 바른 길을 버려
서 진실됨을 가마득히 잊고서는 작은
괴로써 지대로 삼으며 작은 공경으로써
축하다 하여 종일토록 제 배를 불리되
도에는 마음내는 바가 없으니

(한결같은) 물러서서 제 자신을 되돌아
볼진대 실로 슬픈 일이라.

計出家 或有年歲 經業未通 文字不決
계금출가 혹유년세 경업미통 문자불결
徒費一世 無所成名 如此之事 不可深察
徒費一世 無所成名 如此之事 不可深察
도상일세 무소성명 여차자사 가불심사
無常之限 非但朝夕 三途苦痛 無從無窮
무상지한 비단즉석 삼도고통 무강무약
師徒深察 故以伸示 有清之流 可爲永誠
사도의심 고이신시 유정지류 가위영계

“세속과 무리짓지 말고 도를 보배삼아
절도를 지키고 고난과 가난 즐겨해야”

이제 출가한 때를 생각해 보니 혹 여러
래를 지냈으며 도리공부에 통하지도 못
하고 문자로도 결단치 못하며

한 세상 헛되이 보내 이를조차 이론
계 없으니 이같은 일을 깊이 생각해야
단 하지 않겠는가.

덧없는 한이 아침 아니면 곧 저녁이
라(언제 죽을지 모름 일이라) 삼악도의
고통은 더함도 덜함도 없으리라(지은대
르 받으리라) 스승과 제자의 의리란 짝
은 깨달에 공부길을 써서 밝히노니
뜻있는 사람에선 가히 오래두고 경계
하는 말이 될 것이다.

其一日 嚈已出家 永通生
기일일, 경이출가 영위소생
龍馬現世 法如如形
龍馬現世 法如如形
살날체용 법복가형
薪盡之日 上下涕零 割愛崇道 意夜太清
薪盡之日 上下涕零 割愛崇道 意夜太清
사친지일 상하제영 할애승도 의종태청
當此志 經道修明 如何無心 故存名聲
當此志 經道修明 如何無心 故存名聲
당준차지 경도수명 여하무심 고존명성
悠悠曩日 經業不成 德行日損 穢難盈盈
유유경일 경업불성 덕행일손 어적수명
師友懸懸 凡俗所經
사우참치 범속소경
如是出家 徒自辱名 今故誡勸 宜當專精
如是出家 徒自辱名 今故誡勸 宜當專精
여시출가 도자욕명 금고회려 의당전정

그 첫째, 그대가 이미 출가했으니 영
영 소생(부모)을 어긴지라
머리 깎아 옹모바꾸고 법복을 입어
모양도 달라졌다.

부모를 떠나면 날 상하게 눈물을 흘
렸거늘 (그럼에도) 사랑을 배고 도를 숭
상하니 뜻이 하늘을 능가했다.

마땅히 이 뜻을 존중하여 불법을 닦
아 밝힐 것이거늘 어찌 도에 무심하여
잡짓 색성(오욕락)에 머물며
한가히 나날을 마쳐 공부를 이루지
않는가. 덕행은 날로 줄고 더러운 쌓
여 마침내 가득 차니

스승과 벗이 부끄럽고 부끄러우며 법
속에 입신여가는 바로다.

이같은 출가는 다만 제 스스로 이를
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제 힘써 가르
치노니 오로지 정진할지이다.

其二日 嚈已出家 棄俗辭君
기이일, 경이출가 기속사군
應自勵勵 志果其靈 財色不顧 與世不群
應自勵勵 志果其靈 財色不顧 與世不群
용자회려 지과침은 재색불고 여세불군
金玉不貴 惟道爲珍 約己守節 甘苦樂貧
金玉不貴 惟道爲珍 約己守節 甘苦樂貧
금옥불귀 유도위진 약기수절 감고락빈
進德自度 又能度人 如何改業 趨走無難
진덕자도 우능도인 여하개조 추주공진
坐不愛席 寢不愛被 譬如僧役 縣官所產
좌불애석 침불애비 예가승역 현관소산
좌불안석 침부동서 극여요역 현관소견

經道不通 戒德不周 朋友誑弄 同學棄捐
경도불통 계덕부전 봉우치용 동학기연
如是出家 徒費天年 今故誡勸 宜各自辨
如是出家 徒費天年 今故誡勸 宜各自辨
여시출가 도상천년 금고회려 의각자변

그 둘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세속
을 버리고 일군(나라 일)을 마다한 것
이다.

마땅히 스스로 꾸짖으며 힘써 뜻이
푸른 하늘같이 재물과 색을 돌아보지
않으며 세속과 더불어 무리 짓지 말라.
금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도를 보배로 삼아 몸을 검약하게, 절도
를 지키고 고난을 달게 받아 가난을 즐
겨하며 덕에 나아가 스스로를 제도하고
또 남도 제도해야 한다. (그러해야 하거
늘) 어찌하여 지조를 바꾸어 풍진세상
에 이리저리 날뛰며 앉은 자리 답하지
않고 (좌정하지 못하고) 동서로 치닫기
를 실행하기가 마치 부역으로 관청에 끌
려간 것 같이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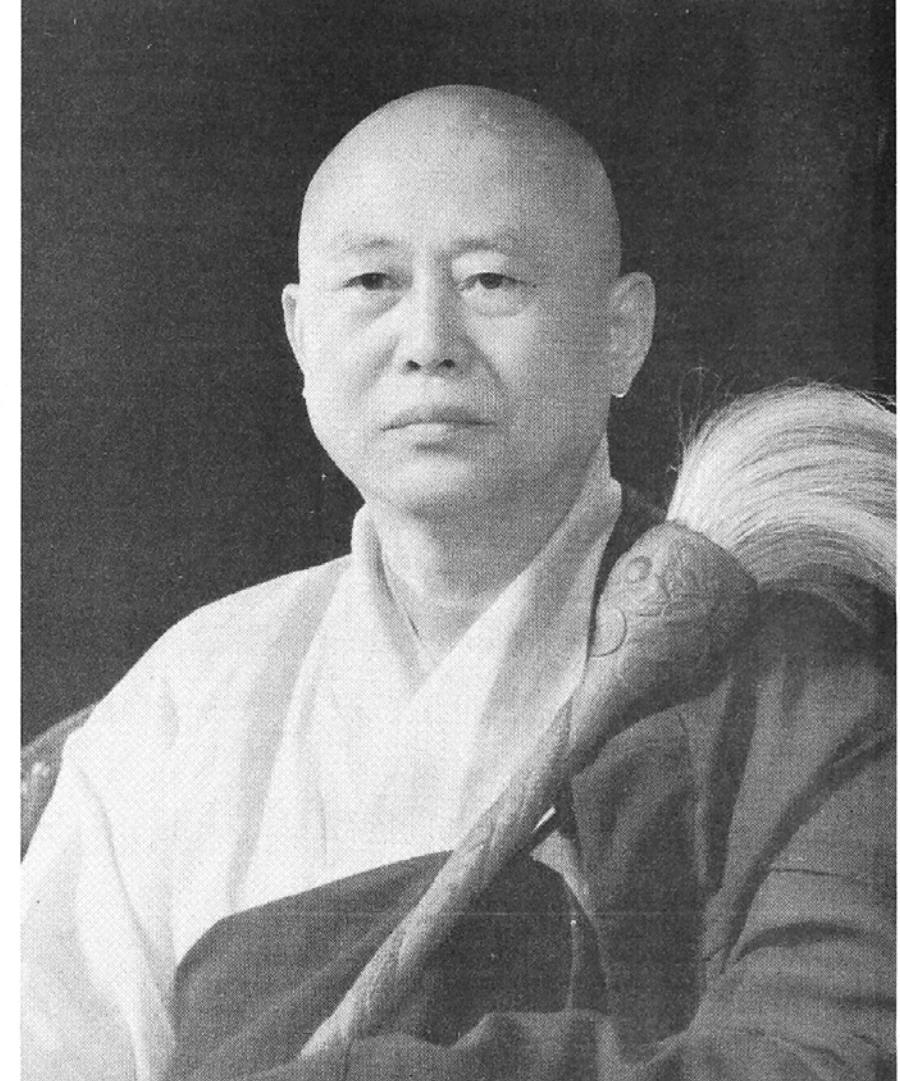
마음공부에도 통하지 못하고 계율과
덕행에도 온전치 못해 벗들이 비웃고
도반이 버리고 떠나게 하는가.

이같은 출가는 단지 천명만 읽게 할
뿐이니 이제 집짓 꾸짖어 가르치노라.

각자는 마땅히 스스로를 가려내 여길
지이다. 龍眼

“우주만물은 나와 인연

천운스님 (대둔사 주지)



약력
· 1932년 전북 고창 출생
· 47년 월정사에서 지임스님 은사로 득도
· 71년부터 전남 광주월원사에서 포교양장
· (보시 행하는 길) 등 저서와 수상록 벌여 집 다수

화엄경은 부처님 당신이 깨친후 마음
으로 보신것을 경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지 않으면 팔대로 못보는 세계
가 화엄경 세계 입니다.

그러므로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
서는 화엄경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요지를 말해봐라 할 때 맞붙이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깨침의
지혜와 지비'입니다. 깨침의 지혜로 보면
이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인간의 마음이 일
체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대한 것을 보면 나보고는 '인'
너보고는 '연'이라 합니다. 인연이란 상대
했기에 인연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혼
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우주를 봤을 때 실다운 모습은 나와
인연 안된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남을 위
한다고 하는 일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나
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주위가 괴로운데 나
만 행복할 수 없고 연을 따져보면 모두 친
척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사는
마음은 현실극락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깨침의 길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깨쳐다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
엄경의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 내용
입니다. 깨친본은 광명이 모든 세포에서 나

“착한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도 착하게 행동하면서
남도 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만 착하고 남이 악하면
세상은 악의 세계가 됩니다”

은 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그 빛을 보고
깨침을 얻으라는 제시입니다.

부처님은 발바닥으로 광명을 비추는데
삼천大千 백억세계를 비쳤답니다.

부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구제할 대상
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사
람과 화엄경이라는 법과 사람이라는 비
유법을 통해 설명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문수보살부터 각수보살 제수보살
보현보살 공덕주보살등 여러보살,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는 형상화로 설명하
여 증생에게 정확히 이해하라는 뜻 입니다.

부처님이 세계를 연출하셨으니가 증생들
은 문수보살의 신통력으로 쉽게 볼 수 있
도록 하는 지상한 마음의 표출이었던 것입
니다.

이것이 '여래광명각품'의 뜻 입니다. 보
고 깨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깨쳐
야 되지만 자기만 깨치면 절대 안됩니다.
깨쳤으면 반드시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일러 보살도의 실천이라 하지
요.

자기만 깨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
습니다. 이 우주에 도움이 안됩니다.

다시말해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도 착하게 행동하면서 남도 착하도록 하는
것이 나만 착한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하면 그 세상은 악
의 세계일 뿐입니다. 현실지옥 이지요. 착
한 사람이 많아야 악한사람이 적어서 세상
살기가 좋은 이치입니다.

깨달기 위해서는 착해야하고 착하지 않
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불교의
이치 입니다.

그러면 착함은 얼마만큼 올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부처님 경지까지 올라
가야 합니다.

착함의 경지에 올라가면 저절로 부처님

의 힘을 빌려가지고 증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지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누가
없고 온세상에 안착하면 도인이 아니다”
이말은 어떤사람이 부처를 이루어 해탈하
고 성신이 났을때 그 사람이 세간에 착심
이 없고 증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도인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내가 불도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것이 불자와 불심있는 자라는 말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같이 행을 했던 훌륭
한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고승 대덕들이
출몰하였지만 신라승 교각스님이 그 분이
지요.

신라 경순왕의 조카였던 교각스님은 출
가하여 도를 깨달은뒤 지장신앙을 펴고자
24세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서쪽 안위
성 구화산을 수행처로 정하고 자리를 잡아
야했는데 그 땅이 민씨왕가의 소유였습니
다.

그래서 민씨를 찾아가 “가사를 덮을 정
도만 땅을 주면 수행할 공간이 충분하겠
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씨가 “그정도
못주겠느냐며 좋은 곳 어디나 가사를 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교각스님은 제일높은 산봉우리 위로 올
라가서 “이만큼만 주십시오”하며 가사를
펴는데 민씨가 “예”하자 가사가 구화산 전
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민씨의 큰 아
들이 놀라 그자리에서 출가했는데 도명이

Advertisement for '4대 방장 큰스님 친견법회' (4th Grand Preceptor's Personal Meeting) by Modern Buddhist News. Includes dates (1995.10.14-18), locations, and contact info for Sumisan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수련원 양도합니다' (Transfer of Suyeonwon). Details location, facil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t.